연변의 청소년 축구선수들 전국성 경기서 좋은 성적

— 연변 남자 U14 대표팀 '서부청소년훈련컵' 축구경기서 3등 영예

제1회 '서부청소년훈련컵' 축구교류경기가 12월 16일 호북성체육국 축구운동관리중심 고수수(姑嫂树) 훈련기지에서 막을 내렸다. 나흘 동안의 치렬한 각축을 거쳐 연변 남자 U14 대표팀이 남자조 3등의 영예를 따냈다. 광동성 매주시의 남녀 U14 대표팀이 각각 남자조와 녀자조 우승을 따냈다.

이번 축구교류경기는 연변, 감주, 매주, 량산, 필절, 지단, 일리, 카스카르 등 8개 서부지역체육교육융합축구청소년훈련체계건설 시범도시의 U14 년령대 남녀 각각 8개 대표팀과 총 400여명 청소년 운동원, 감독들이 참가했다. 연변에서는 남자 U14 대표팀 22명과 녀자 U14 대표팀 19명을 파견하여 경기에 참가했다.

13일에 있은 대회 개막전에서 연변팀 꼴키퍼 코치 조헌은 "이번 대회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무대를 마련해주었다. 중국 프로축구 1부 리그에 연변대표팀이 없은 지도 오래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갑A 시대 연변 축구의 풍격을 잊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견지하고 있다. 우리 팀원들이 이 무대에서 모두에 우리 연변 축구의 풍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는 중국축구협회와 중국축구발전기금회에서 주최하고 호북성체육국에서 주관, 호북성체육국 축구운동관리중심과 호북성축구협회에서 집행을 맡았는데 시합, 훈련, 연구토론, 현장수업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시범도시 청소년 훈련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서부지역 기층 감독들의 지도 능력과 청소년 축구 기능을 제고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변은 2023년말 8개 전국 제1진 국가 서부지역체육교육융합축구청소년훈련체계건설 시범도시에 입선된 뒤 청소년 축구 개혁 발전과 중점 임무를 정조준하고 체육교육융합 조치를 심화하는 데 주력했으며 전 년령단계 청소년 축구 후비인재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했는바 학습, 훈련, 경기를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청소년 축구의 개혁 발전을 적극 추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에도 연변에서는 정책인솔, 기제협동, 조직보장, 시설건설, 인재양성 등 방면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서부지역체육교육융합축구청소년훈련체계건설 시범도시 중점 임무가 연변에서 착지하고 열매를 맺도록 추동할 예정이다.

/ 김파기자

연길시청소년활동중심 국가급 '류동소년궁' 시범단위로

연길시청소년활동중심이 10일부터 13일까지 광서좡족자치구 남녕시에서 열린 2024년도 '류동소년궁' 공익활동 사업총화회의에서 중국청소년궁협회로부터 2024년도 '류동소년궁' 시범단위 영예칭호를 수여받았다. 이번 사업총화회의에서는 '류동소년궁' 공익활동 전개 과정에서 활약이 돌출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였다.

알아본 데 따르면 지난 1년간 연길시청소년활동중심에서는 '류동소년궁' 공익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전문교원, 과외수업 등 량질 교육자원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방문', '초청', '융합' 등 방식으로 청소년 특히는 특수 소년아동 군체를 위해 그들이 즐겨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조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총화회의에서 연길시청소년활동중심 책임자가 '류동소년궁' 사업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는 교외 교육자원 균형화를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교육의 일체화 발전에 조력하는 방면에서 거둔 연길시청소년활동중심의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에서 연길시청소년활동중심의 민족무용교원 안향단과 도예교원 리광춘이 각기 시범수업을 펼쳤다. 두 교원은 '중화민족은 한가족',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등 주제를 둘러싸고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시범수업을 선보여 회의 참가자들의 광범한 찬사를 받았다.

연길시청소년활동중심 관련 책임자는 "계속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주선을 견지하면서 더욱 혁신적이고 다채로운 형식으로 '류동소년궁' 사업을 추진해 도시와 농촌 학생들에게 보다 우수하고 풍부한 과외 교육 봉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파기자

연길, 체육교원 빙설 종목 교수 기능 양성을

12월 13일, 연길시 중소학교 체육교원 빙설 종목 교수 기능 양성이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 스케트장에서 막을 내렸다. 3일간의 양성을 거쳐 연길시 200여명 중소학교 체육교원들은 빙설운동 기능에서 현저한 진보를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리념과 방법에서도 업데이트되여 금후 학교에서 빙설운동을 더욱 잘 보급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다지게 되였다. 이번 빙설 종목 교수 기능 양성은 연길시교육국에서 주최하고 연길시교사연수학교에서 주관했으며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협찬했다.

교수 기능 양성 내용에는 빙설운동 종목의 교수, 활동, 훈련, 경기 등에 대한 리론지식과 빙상 전문 기능, 빙설운동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문제와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기본 구급지식 등이 포함되였다. 이번 양성의 목적은 연길시 중소학교 체육교원들의 빙설운동 기능과 교수 수준을 향상시키고 빙설운동 교원들의 창의력과 지도력을 양성하며 교정에서의 빙설운동 종목의 보급과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데 있다.

근년에 연길시 빙설특색학교는 국가 및 성급 빙설 경기에서 여러차례 좋은 성적을 거두어 전 성 빙설운동 예비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빙설운동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 현재, 연길시 교정 빙설운동 보급률은 90%를 넘는다.

2025년, 연길시는 기존의 보급 성과를 공고히 하는 기초에서 교육과 체육 융합 전략을 한층 더 심화하고 스케트, 스키 등 각종 스포츠 행사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치밀하게 조직하여 빙설운동을 교정 체육의 아름다운 풍경선이 되게 할 타산이다.

/ 김파기자

연변촬영가협회 설립 65주년 성과전 개최

12월 13일, 길림성촬영가협회, 연변미술관, 연변촬영가협회에서 주최하고 룡정시정정도편사가 주관, 연변로동자문화궁이 협찬한 연변촬영가협회 설립 65주년 성과전이 연변미술관에서 개막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문학예술계련합회 당조 서기이며 주석인 최홍녀, 길림성촬영가협회 주석 정춘생, 주문학예술계련합회 당조 성원이며 비서장인 전향란, 연변미술관 부관장 류림, 길림성촬영가협회 부주석이며 주문학예술계련합회 부주석이며 연변촬영가협회 주석인 차광범, 길림성촬영가협회 부주석 강희보, 연변촬영가협회 주석단 성원, 각 기 예술인 대표, 각 현시 촬영가협회 주석단 성원, 원로 촬영가와 일부 회원 대표 및 언론매체 기자 등 200여명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연변촬영가협회 주석 차광범은 축사에서 "시간은 덧없이 흐르고 빛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공동으로 연변촬영가협회 설립 65주년을 기념하고 연변촬영가들의 65년 성과 회고전을 개최하게 되였다. 이런 우수한 사진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연변 촬영의 성장과정을 회고하고 총화하며 연변 촬영인들이 초심과 사명을 잊지 않고 계속하여 렌즈로 시대의 맥박을 포착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전은 '빛은 휘황찬란함을 만들고 렌즈는 시대를 기록하다(光影铸就辉煌, 镜头记录时代)'를 주제로 력대 국가급 전람과 국제 전람 등 중요한 전람회에 입선된 작품들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작품들은 연변의 독특한 자연풍광, 인문경관과 민족풍정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천과 사회의 진보도 깊이 반영하였다. 작품들은 연변의 촬영가들이 렌즈로 력사적 순간을 포착해 시대의 기억을 고정시킨 생생한 증거이자 예술의 이름으로 관객들에게 연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깊은 고백이기도 하다.

이런 우수 작품 전시는 연변촬영가협회가 국내외 촬영 무대에서 이룩한 휘황한 성과를 회고하고 총화한 동시에 미래를 전망하면서 더 많은 촬영가들이 끊임없이 탐색하고 혁신하며 계속하여 촬영사업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함으로써 아름다운 래일을 위해 더 많은 영상 흔적을 남기고 더 좋은 순간을 증명하며 영상의 힘으로 문화를 전승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도록 격려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이번 전시는 12월 25일까지 지속된다.

/ 김파기자
/ 사진 연변촬영가협회

평균년령 65세 '연주자'들, 피아노로 '꿈'의 선률 연주

평균년령 65세 '연주자'들이 피아노로 '꿈'의 선률을 연주했다.

연길시문학예술계련합회에서 주최하고 연길시음악가협회에서 주관한 새봄맞이 중로년피아노음악회가 지난 13일 오후, 연길시황관혼례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중로년들에게 피아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플래트홈을 마련하여 그들의 정신문화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데 주력하고 바야흐로 새해가 다가오는 때에 즐겁고도 상서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그 취지를 두었다.

음악회가 시작되자 무대 복장을 차려입은 피아노 애호가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재능을 한껏 뽐냈다. 고전음악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는 불후의 명곡, 대중음악들이 잇달아 연주되며 현장을 찾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날 무대에 오른 9명의 연주자 대부분은 퇴직한 후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그야말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악기를 접한 애호가들이였다. 퇴직전 교원, 회계사, 공무원 등 각자의 일터에서 활약하던 이들은 그제날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았던 아쉬움을 퇴직후 '인생 2막'에서 꽃피웠던 셈이다.

제일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로 배움의 시간은 각각 달랐지만 평소의 연습량을 자랑하듯 무대에서 이들은 프로 못지 않은 연주 실력을 한껏 선보이며 장내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무대를 제공해준 덕분에 어렸을 적 음악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어 떨렸지만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한 김철매 역시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칠 수 있고 또 어릴 적 꿈을 이룰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열어주어 이 기회가 너무 소중하다고 말했다. 짬짬이 시간을 내서 개인 레슨까지 받으러 다닌다며 열정을 보인 그는 명년에 퇴직하고 나면 피아노 연습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웃었다.

이번 새봄맞이 중로년피아노음악회는 중로년들의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정신상태와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길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현장 관객들의 긍정을 받으며 막을 내렸다.

/ 김가혜기자

제3회 '꼬마작가'상 글짓기시합 시상식 연길서

12월 14일 오전, 연변작가협회와 중국조선족소년보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꼬마작가'상 글짓기시합 시상식이 연길시신흥소학교에서 개최되였다.

동북 3성 30여개 중소학교의 2,030명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글짓기시합은 조선어와 한어 두개 부문으로 진행되였는데 한어부문에 1,575명이 참가하고 조선어부문에 455명이 참가하여 글짓기 기량을 겨루었다. 교원, 작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도 공평한 심사를 거쳐 룡정시북안소학교 6학년 2중대 강해주, 연길시제10중학교 8학년 5반 림지혜, 심양시혼남구조선족학교 5학년 1중대 리서연, 연길시제10중학교 9학년 2반 김예헌 등 4명 학생이 대상을, 연길시공원소학교 6학년 2중대 리현림, 길림시조선족실험소학교 5학년 2중대 김주현, 연길시제13중학교 김지은 등 8명 학생이 금상을, 연길시중앙소학교 6학년 2중대 허수정, 화룡시신동소학교 6학년 1중대 김영광, 매하구시조선족실험소학교 5학년 1중대 오회녕 등 16명이 은상을, 연길시신흥소학교 5학년 3중대 박희준, 대련시조선족학교 6학년 1중대 류은희, 녕안시조선족소학교 4학년 2중대 김나혜 등 72명이 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지녔다.

그외 룡정시북안소학교 장하, 연길시제10중학교 김춘화, 로금려, 심양시혼남구조선족학교 최일선 등 4명 지도교원이 대상을, 연길시신흥소학교 류설매, 길림시조선족실험소학교 김칠선, 훈춘시제1실험소학교 랑우추몽 등 8명 지도교원이 금상을, 도문시제1소학교 한단, 장춘시 록원구조선족소학교 김영철, 심양시 소가툰구조선족소학교 강정화 등 10명 지도교원이 우수조직상을 수상하였다.

연변작가협회 당조 서기이며 주석인 최문덕은 총화발언에서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이라고 하면서 '꼬마작가'상 글짓기시합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학 소양과 마음가짐을 전면적으로 승화시키고 어려서부터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고상한 품성을 양성할 것을 희망하였다.

/ 김태국기자